

NH-Amundi 글로벌 혁신기업 증권자투자신탁(H)[주식] [펀드코드: C7020]

투자위험등급 : 2등급[높은 위험]

NH-Amundi자산운용(주)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(2)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.

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,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80% 이상을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'NH-Amundi 글로벌 혁신기업 증권모투자신탁 [주식]'에 투자하여 해외 증권의 가격변동위험, 국가위험, 환율변동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이 요약정보는 'NH-Amundi 글로벌 혁신기업 증권자투자신탁(H)[주식]'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.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[요약정보]

투자목적 및 투자전략	이 투자신탁은 해외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'NH-Amundi 글로벌 혁신기업 증권모투자신탁[주식]'에 투자신탁재산의 80% 이상을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.									
분류	투자신탁, 증권(주식형), 개방형(중도환매가능), 추가형(추가납입가능), 종류형, 모자형									
투자비용	클래스 종류	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(단위: %)			1,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(단위: 천원)					
		판매수수료	총보수	판매보수	동종유형 총보수	1년	2년	3년	5년	10년
	수수료선취-오프라인(A)	납입금액의 1.0%이내	1.675	0.70	0.95	341	587	840	1,367	2,823
	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(C)	없음	1.975	1.00	1.73	277	562	854	1,460	3,114
	수수료선취-온라인(Ae)	납입금액의 0.5%이내	1.325	0.35	0.94	260	476	698	1,165	2,469
	수수료미징구-온라인(Ce)	없음	1.475	0.50	1.27	227	460	701	1,205	2,606
	(주 1) '1,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'는 투자자가 1,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합성 총보수·비용(판매수수료 + 총보수비용 +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보수 (혹은 모투자신탁에서 발생한 비용))을 의미합니다. 선취판매수수료 및 합성·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,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, 연간 투자수익률은 5%로 가정하였습니다.									
	(주 2) 종류 A형과 종류 C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8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종류 Ae형과 종류 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9개월이 되는 경과시점이나 추가납입,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									
	(주 3)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 2 부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(31 페이지)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									
	(주 4) '동종유형 총보수'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.									
투자실적추이 (연평균 수익률) (단위, %)	종류	최초설정일	최근 1년 18.08.01 ~ 19.07.31	최근 2년	최근 3년	최근 5년	설정일 이후			
	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(C)	2018.04.20	10.27				8.62			
	비교지수		-				-			
	수익률 변동성		19.54				18.53			



	국가위험	이 투자신탁은 해외 주식 등에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의 시장,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, 일부 투자국가 증권의 경우 외국인의 투자 한도, 넓은 매매호가 차이, 증권시장의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. 또한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,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,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 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.		
	특정주식 집중투자위험	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주식은 특정 산업에 속하는 주식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시장 전체의 성과와는 크게 다를 수 있으며, 일반적으로 해외 주식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투자신탁보다 더 높은 위험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		
	환율 변동위험	<p>이 투자신탁은 외국 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외국 통화의 가치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. 즉,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자산은 외화로 표시되어 거래되기 때문에 해당 통화가 원화 대비 가치가 하락할 경우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</p> <p>이 투자신탁은 이러한 환율변동위험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에 편입된 외화자산에 대해 통화관련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한 환헤지를 수행합니다. 다만, 이 투자신탁의 환헤지 전략은 미국달러(USD)와 원화(KRW)간의 환헤지 실행으로 미국달러 이외의 이중통화 표시 외화자산과 미국달러간의 환변동에 따른 손익 변동성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. 환위험 노출과 관련하여서는 투자신탁 환위험 관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</p> <div><p>※ 환위험관리: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주로 외화자산에 투자하되 환헤지를 수행하지 않습니다. 다만, 이 투자신탁(자투자신탁)은 환헤지를 수행하지 않는 모투자신탁 투자에 따르는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통화관련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(예: 선물 또는Forward계약 등)을 이용한 환헤지를 수행합니다. 목표 환헤지 비율은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에 편입된 외화표시자산에 대해 원화(KRW)와 미국달러(USD)간에 70±30% 수준입니다. 다만, 미국달러와 이중통화간에는 환헤지를 실행하지 않으므로 환변동에 따른 손익 변동성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.</p><p>환헤지란 선물환계약 등을 이용하여 펀드의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의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없애는 것을 뜻합니다. 즉, 해외펀드는 대부분 달러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(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)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헤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. 그러나 반대로 투자대상 국가의 경제성장 등으로 인하여 해당국 통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환차익을 얻을 수 있으며, 이와 같은 경우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되기도 합니다. 또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 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됩니다</p></div>		
매입 방법	• 17 시 이전: 3 영업일 기준가 매입 • 17 시 경과 후: 4 영업일 기준가 매입		한매 방법	• 17 시 이전: 4 영업일 기준가 8 영업일 지급 • 17 시 경과 후: 5 영업일 기준가 9 영업일 지급
환매수수료	- 해당사항 없음 -			
기준가	• 산정방법 - 당일 기준가 = (직전일 투자신탁 자산총액 - 부채총액)/직전일 수익증권 총좌수 - 1,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• 공시방법 - 서류공시 : 판매회사 영업점에서 매일 게시 및 공시 - 전자공시 : 집합투자업자, 판매회사,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매일 전자 공시			
과세	구분	과세의 주요 내용		
	집합투자기구	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.		
	수익자	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<b>15.4%(지방소득세 포함) 세율로 원천징수</b> 됩니다. 단,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(2천만원)을 초과		

	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.  <b>&lt;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&gt;</b> 매년 결산·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(다만,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·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·분배되어 과세됩니다).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												
전환절차 및 방법	- 해당사항 없음 -												
집합투자업자	NH-Amundi 자산운용(주) (대표번호: 02-368-3600/ 인터넷 홈페이지: www.nh-amundi.com)												
운용관련 자문업자	회사명: CPR Asset Management (설립년도: 1989년) 주 소: 90 Boulevard Pasteur, F 75730 Paris, France 연락처: +33 1 53 15 70 00 업무 위탁의 범위: 모투자신탁재산의 운용·운용지시업무와 관련한 조사분석 업무의 위탁												
모집기간	추가형으로 계속 모집가능	모집, 매출 총액	모집(매출)총액에 제한 없음										
효력발생일	2020년 9월 8일	존속기간	정해진 신탁계약 기간은 없음										
판매회사	집합투자업자(www.nh-amundi.com), 한국금융투자협회(dis.kofia.or.kr) 인터넷홈페이지 참고												
참조	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(주요업무),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 4 부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(54 페이지)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												
집합투자기구의 종류	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-판매경로-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 단계로 구분되며,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.												
	<table><tr><th>종류(Class)</th><th>집합투자기구(펀드) 특징</th></tr><tr><td rowspan="3">판매수수료</td><td>수수료 선취 펀드 가입시점(혹은 추가불입시점)에 판매수수료(판매사에 일회성으로 지불하는 수수료)가 일시에 징구되는 클래스(종류형펀드)입니다. 선취판매수수료 징구로 인해 펀드가입기간동안 판매보수(투자금액에서 매일계상되는 보수)가 수수료미징구형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<b>특정시점*</b>을 기준으로 총비용이 수수료미징구형보다 낮아져 장기투자에 적합한 클래스(종류형펀드)입니다. 따라서 <b>특정시점*</b> 이전에 환매할 경우 수수료미징구형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클래스(종류형펀드)입니다. * 특정시점: 수수료선취형과 수수료미징구형의 총비용이 같아지는 시점 * 특정시점 이전 환매시 수수료미징구형 가입이 유리 <b>** 동 펀드의 특정시점은 약 2년 8개월입니다.(오프라인 기준)</b> <b>** 동 펀드의 특정시점은 약 2년 9개월입니다.(온라인 기준)</b></td></tr><tr><td>수수료 미징구 펀드 가입(혹은 추가불입)시점이나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가 없고, 판매보수가 수수료선취형 또는 수수료후취형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는 클래스(종류형펀드)입니다. 따라서 <b>특정시점*</b> 이전에 환매할 경우 수수료선취형보다 낮은 수수료를 포함한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클래스(종류형펀드)입니다. * 특정시점: 수수료선취형과 수수료미징구형의 총비용이 같아지는 시점 * 특정시점 이전 환매시 수수료미징구형 가입이 유리 <b>** 동 펀드의 특정시점은 약 2년 8개월입니다.(오프라인 기준)</b> <b>** 동 펀드의 특정시점은 약 2년 9개월입니다.(온라인 기준)</b></td></tr><tr><td>수수료 후취 펀드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클래스(종류형펀드)로 판매수수료는 수수료선취형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이 되며, 펀드 가입 이후 일정기간 이후 환매시 판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* 판매수수료: 수수료선취형 &gt; 수수료후취형 * 동 펀드의 수수료후취형은 3년이상 투자시 판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.</td></tr><tr><td>판매경로</td><td>온라인</td><td colspan="2">판매회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클래스(종류형펀드)로 오프라인(판매회사 창구)으로 판매되는 클래스(종류형펀드)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. 다만, <b>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.</b></td></tr></table>			종류(Class)	집합투자기구(펀드) 특징	판매수수료	수수료 선취 펀드 가입시점(혹은 추가불입시점)에 판매수수료(판매사에 일회성으로 지불하는 수수료)가 일시에 징구되는 클래스(종류형펀드)입니다. 선취판매수수료 징구로 인해 펀드가입기간동안 판매보수(투자금액에서 매일계상되는 보수)가 수수료미징구형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<b>특정시점*</b> 을 기준으로 총비용이 수수료미징구형보다 낮아져 장기투자에 적합한 클래스(종류형펀드)입니다. 따라서 <b>특정시점*</b> 이전에 환매할 경우 수수료미징구형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클래스(종류형펀드)입니다. * 특정시점: 수수료선취형과 수수료미징구형의 총비용이 같아지는 시점 * 특정시점 이전 환매시 수수료미징구형 가입이 유리 <b>** 동 펀드의 특정시점은 약 2년 8개월입니다.(오프라인 기준)</b> <b>** 동 펀드의 특정시점은 약 2년 9개월입니다.(온라인 기준)</b>	수수료 미징구 펀드 가입(혹은 추가불입)시점이나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가 없고, 판매보수가 수수료선취형 또는 수수료후취형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는 클래스(종류형펀드)입니다. 따라서 <b>특정시점*</b> 이전에 환매할 경우 수수료선취형보다 낮은 수수료를 포함한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클래스(종류형펀드)입니다. * 특정시점: 수수료선취형과 수수료미징구형의 총비용이 같아지는 시점 * 특정시점 이전 환매시 수수료미징구형 가입이 유리 <b>** 동 펀드의 특정시점은 약 2년 8개월입니다.(오프라인 기준)</b> <b>** 동 펀드의 특정시점은 약 2년 9개월입니다.(온라인 기준)</b>	수수료 후취 펀드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클래스(종류형펀드)로 판매수수료는 수수료선취형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이 되며, 펀드 가입 이후 일정기간 이후 환매시 판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* 판매수수료: 수수료선취형 > 수수료후취형 * 동 펀드의 수수료후취형은 3년이상 투자시 판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.	판매경로	온라인	판매회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클래스(종류형펀드)로 오프라인(판매회사 창구)으로 판매되는 클래스(종류형펀드)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. 다만, <b>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.</b>	
	종류(Class)	집합투자기구(펀드) 특징											
	판매수수료	수수료 선취 펀드 가입시점(혹은 추가불입시점)에 판매수수료(판매사에 일회성으로 지불하는 수수료)가 일시에 징구되는 클래스(종류형펀드)입니다. 선취판매수수료 징구로 인해 펀드가입기간동안 판매보수(투자금액에서 매일계상되는 보수)가 수수료미징구형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<b>특정시점*</b> 을 기준으로 총비용이 수수료미징구형보다 낮아져 장기투자에 적합한 클래스(종류형펀드)입니다. 따라서 <b>특정시점*</b> 이전에 환매할 경우 수수료미징구형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클래스(종류형펀드)입니다. * 특정시점: 수수료선취형과 수수료미징구형의 총비용이 같아지는 시점 * 특정시점 이전 환매시 수수료미징구형 가입이 유리 <b>** 동 펀드의 특정시점은 약 2년 8개월입니다.(오프라인 기준)</b> <b>** 동 펀드의 특정시점은 약 2년 9개월입니다.(온라인 기준)</b>											
		수수료 미징구 펀드 가입(혹은 추가불입)시점이나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가 없고, 판매보수가 수수료선취형 또는 수수료후취형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는 클래스(종류형펀드)입니다. 따라서 <b>특정시점*</b> 이전에 환매할 경우 수수료선취형보다 낮은 수수료를 포함한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클래스(종류형펀드)입니다. * 특정시점: 수수료선취형과 수수료미징구형의 총비용이 같아지는 시점 * 특정시점 이전 환매시 수수료미징구형 가입이 유리 <b>** 동 펀드의 특정시점은 약 2년 8개월입니다.(오프라인 기준)</b> <b>** 동 펀드의 특정시점은 약 2년 9개월입니다.(온라인 기준)</b>											
수수료 후취 펀드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클래스(종류형펀드)로 판매수수료는 수수료선취형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이 되며, 펀드 가입 이후 일정기간 이후 환매시 판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* 판매수수료: 수수료선취형 > 수수료후취형 * 동 펀드의 수수료후취형은 3년이상 투자시 판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.													
판매경로	온라인	판매회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클래스(종류형펀드)로 오프라인(판매회사 창구)으로 판매되는 클래스(종류형펀드)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. 다만, <b>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.</b>											

		오프라인	오프라인전용(판매회사 창구)으로 판매되는 클래스(종류형펀드)로 판매회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클래스(종류형펀드)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. 오프라인전용(판매회사 창구) 클래스(종류형펀드)는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.
		온라인슈퍼	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클래스(종류형펀드)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습니다. 다만, 온라인 전용클래스(종류형펀드)와 동일하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.
	기타	보수체감 (CDSC)	수수료미징구형 클래스(종류형펀드)로 이연판매보수(CDSC) 프로그램에 따라 판매보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환 청구없이 펀드의 투자기간(보유기간)이 경과함에 따라 판매보수가 낮은 클래스(종류형펀드)로 자동 전환되는 클래스(종류형펀드)입니다. * 이연판매보수(CDSC: Contingent Deferred Sales Charge, 투자기간 경과(1년 단위)에 따라 자동적으로 C1--> C2--> C3 --> C4[--> C5])로 전환되며 펀드 가입이후 4[5]년부터 C4[C5]의 판매보수가 적용
		무권유저비용	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펀드에 가입할수 있는 클래스(종류형펀드)입니다. 일반적으로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를 받아 가입하는 경우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.
		개인연금	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클래스(종류형펀드)입니다.
		퇴직연금	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(IRP)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클래스(종류형펀드)입니다.
		기관	법에서 정하는 펀드(집합투자기구),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, 법에서 정한 전문투자자 또는 일정금액 이상을 가입하는 고액투자자(법인 or 개인)가 투자할 수 있는 클래스(종류형펀드) 입니다. * 고액 투자자의 최소투자금액은 펀드별 가입자격을 참고
		랩	판매회사의 일임형 랩어카운트(Wrap account), 법에 의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 및 보험업법에 의한 특별계정의 신탁업자가 투자할 수 있는 클래스(종류형펀드)입니다.

### [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]

- 증권신고서: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(dart.fss.or.kr)
- 투자설명서: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(dart.fss.or.kr), 한국금융투자협회(kofia.or.kr), 집합투자업자(www.nh-amundi.com)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
- 정기보고서(영업보고서, 결산서류): 금융감독원 홈페이지(www.fss.or.kr)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(dis.kofia.or.kr)
- 자산운용보고서: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(dis.kofia.or.kr)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(www. nh-amundi.com)
- 수시공시: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(dis.kofia.or.kr)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(www. nh-amundi.com)